

입학사정관제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특집

입학사정관제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입학사정관제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특집

1. 입학사정관제도의 취지와 현황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조교수

서울대학교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38.6%에 이르는 1,200여 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이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환경이나 소질,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에서 종합적인 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평가 요소의 수치화를 통한 단선적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학업능력,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2009).

현재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정원 외의 특별전형에 국한되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원 내(일반 선발)			정원 외(입학사정관제 선발)			
	수시모집		정시모집	수시모집	정시모집		
	지역균형 선발전형	특기자 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
2009	758명	937명	1,199명	30명	88명	18	
2010	753명	1,150명	1,211명	140명 이내*		18명 이내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2010년부터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수시모집)으로 통합됨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2002학년도부터 실시하여 정시모집에서 약 100여 명을 매년 선발하고 있는데, 2008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한편,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은 2009학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30명을 모집하며,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였다. 그러나 2010학년도부터는 이 두 전형을 모두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으로 통합하여,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140명을 선발하였고, 향후 모든 전형에 이를 도입하여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입학사정관 제도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동년 집단 상위 0.5%의 학업 수월성을 갖춘 동질적인 인재를 선발해 왔다. 그러나 입학 트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하여 다양해짐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배경과 특성은 다양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전형의 신입생과 비교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은 사교육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선수교과목의 종류나 심화학습의 정도가 유사하지 않을 것이며, 기초 학문의 경우 영역별로 다른 집단 간, 혹은 동일 집단 내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관리본부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입시 전형 유형과 대학 입학 후 학업 성적(GPA)을 비교 분석한 결과, GPA 성적이 입학 전형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같은 전형 집단 내에서도 학습자 간에 GPA 성적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여 그들의 잠재력과 학업 성취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학업 수월성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 및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입학사정관 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

신입생들에게 입학 전 시기는中等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때이다. 이 시기에 신입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교육의 요체는 대학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학업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소양을 학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의 관련 기관들이 신입생의 입학 전 교육을 위한 지원을 담당해 왔다.

기초교육원의 경우, 입학 전 시기에 신입생이 대학 교육과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VOD 강의를 통해 수학, 영어 등 기초 학업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왔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04학년도부터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 'learn how to learn' 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학습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성을 갖춘 학습자로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제공하는 리더쉽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과 미래의 비전을 확립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인지적, 정의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입학 전 교육은 교육과정 내(curriculum)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및 전공 과정과 교육과정 외(extra-curriculum)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될 때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돕는 교육 훈련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대학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선발된 학생들이 이러한 자기 계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시기에 접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입학 전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포괄적인 사유 능력과 다원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입학관리본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학업능력 제고 프로그램 연구(2009)'와 기초교육원의 '입학사정관제 선발 학생들을 위한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2009)' 등을 지원해 왔다. 이는 다양한 학습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 편차를 극복하고 잠재적인 학업 능력을 극대화시켜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기초 연구의 지원을 통하여 대학 신입생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입학 이전부터 지원하려는 노력들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기관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단편적이지 않은 통합적 방식으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4.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과제

서울대학교의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을 지원하고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신입생들의 입학 전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교육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입학 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생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신입생들의 학업 수행 방식이나 능력 및 학습 양식은 상호 매우 이질적인 것이므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학생 관리 체제로는 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어렵다. 학생 관리는 학습 상담, 수강신청 관리, 성적 및 학적 관리, 진로 상담 등으로 학사 운영 및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와 지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분산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학사경고자 등 학업 부진자에 대한 사전 상담 또는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매년 다수의 학생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제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생 관리 체제를 시급히 구축하여 학업 수월성을 갖춘 학생들이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 지도 방식을 개선하려면 학내 기관들의 협력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입학관리본부, 교무처, 학생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생활문화원 등의 유관 기관들이 교육 단계별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 동안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특성이나 학습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결과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에 관한 요구 조사를 수행한 자료는 학습자의 출발점에 대한 이해이므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수 집단에게 환류되어야 한다. 학습자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교수자에게 제공되고, 그 결과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교수 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발된 교수 방법의 확산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법 교육을 강화하

여 각 교실 수업에서 실질적인 교육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2009).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 능력 제고 프로그램 연구. 연구보고서. RR 2009-9.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습 특성 이해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2009).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제2회 학습법 전문가 양성 과정

대학 교수학습지원기관의 학습지원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습법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최합니다. 소정의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께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명의의 이수증을 드립니다.

[교육주제] 학사지도 및 학습상담의 이론과 실제

[일 시] 2010년 2월 4일(목)~5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장 소]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참가비] 30만원

[문 의]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880-1327, empark@snu.ac.kr)